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

뉴스데이

newsday.or.kr



제4호 | 발행일 : 2006. 6. 1 | 회장 : 김종균 | 발행·편집인 : 김광란 | 편집국장 : 모동희 | 기사제보·광고문의 031-721-9922 | 팩스 031-721-9921 www.newsday.or.kr



체육계 숙원사업 체육회관 제자리 찾나?

- [모정브리핑]1등 경기도 만들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 [정치풍향계1]성남발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 - 이대엽 성남시장 당선자
- [정치풍향계2]생태와 문화가 숨쉬는 광주 건설 하겠다 - 조역동 광주시장 당선자
- [핫이슈]성남영어마을 '초등생 성추행' 파문
- [인터뷰]성남손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장
- [문화초대석]성남을 충과 효의 도시로 만들어야 -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인터넷 주소창에 **성남일보** 를 치세요

성남일보

snilbo.co.kr

가일리 미노그
빅토리아 베컴
제니퍼 애니스톤
카메론 디아즈 등

세계적인 섹시스타들의 바르는 S라인으로 유명한
**마르네뷰떼가 드디어
한국에 첫선을 보입니다!**

짧은 시간에 원하는 부위만 속속 빠주는 신비의 시스템 다이어트-
유럽의 유명연예인이나 상류층여성들 대부분이 마르네뷰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elebrities by association



London Paris New York Miami & Seoul

바르고 한시간 눈으로확인!



마르네 뷰떼

www.hrs777.com

체인점 모집

콜레인스콜업은 미국/유럽에서 유명연예인과 상류층여성들이 인기리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독점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 최첨단 바디관리전문 프랜차이즈입니다. 불경기에 소자본3,000만원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콜레인스콜업 프랜차이즈사업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거를 완전 제거 (3,000만원이면 오픈 OK)
입차보증금+인테리어/입기 비용+장비+재료비+가맹비포함
월 순수익 : 500만원~1,000만원 이상
담당이사 김광희 : 010-7720-6420

사원모집

■ 피부관리사
■ 점 장
■ 인턴 점장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
HRS는 Health Recovery System의 이나설로 생명공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건강회복을최우선 과제로 연구/노력하는 한,미합작기업입니다.
본사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통영아이원 C-1725호
전화 : (031) 783-6421 웹사이트 : www.hrs777.com

성남시 체육회단체장협의회 김종균 회장

“체육인 단합이 체육발전의 원동력”

‘체육계 숙원사업’, 체육회관 제자리 잡도록 노력할 터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체육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김 회장.

체육은 국력이라고 했던가. 지난 2월 성남시 체육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체육인의 결집, 단합을 위해 체육 가맹단체들이 첫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출범 이후, 경기도 도민대전에서 골프부문을 성남시로는 최초로 전 종목 석권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성남시의 체육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이다.

이 중심에 골프협회 회장이자 성남시 체육회 단체장 협의회 회장인 김종균 회장이 서 있다.

김종균 회장은 “뒤 떨어진 성남시의 체육발전을 앞당기고 체육인들의 집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체육계의 변모를 외치고 있다.

김 회장의 체육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그러다보니 체육 단체들에 대한 직언도 서슴치 않는다. 성남시 체육관계자들이 옛 타성에 젖어 아직도 무사안일하게 체육단체들을 끌고 가려고 한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관선시대부터 민

선3기까지 뚜렷한 업적이 없으면서도 원로 체육인 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일부 체육인들이 체육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뼈 있는 말도 서슴치 않는다.

그러나 그런 지적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하

다는 김 회장. 그도 그렇것이 대다수 체육인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체육정신을 살려 반목과 대립을 화목과 단합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김 회장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회장의 목표도 ‘체육인의 단합’이다.

김 회장이 취임사를 통해서 “같은 흥동과 같은 목소리로 힘을 모아야한다”고 당부한 것이 바로 이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성남시 소속 실업팀은 모두 13

개. 체육 발전의 토대는 이미 마련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토대 위에 어떻게 질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크다고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타 도시보다 질적인 우위를 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바로 체육가맹단체 회장들과 본인이 함께 심사숙고해야하는 과제”라고 의무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 아직 실업팀이 창단되지 않은 종목들도 하루 빨리 창단 하는걸만이 체육발전에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 지원 뿐 아니라 체육 단체장들의 각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 김 회장은 “체육단체장들이 봉

사와 헌신으로 그 의무를 다했을 때 체육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 하며, 그래야만 북돋아져 봉사하는 타 단체장들의 명예가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며, 체육단체장들의 올바른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중립이 꼭 필요하다는 것 또한 김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체육회가 체육을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히 말한다.

최윤희가 체육에 대한 애정으로 단체를 이끌어나가야지, 염불보다 잣법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된다는 일같이다.

이와 함께 역점사업도 밝혔다. “우선 성남시 체육회 가맹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체육회관을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것.

김 회장은 “안타깝게도 체육단체 사무실은 종합운동장과 탄천운동장의 관중석 아래 쪽 반지하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라며, “비가 오면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습기로 인한 정전 등으로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는 등 체육단체들의 불편이 크다”고 밝히고 “현재 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회관을 체육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도민대전에서도 20개 종목중 성남시가 단체우승이나 개인우승을 차지한 종목은 고작 골프 한 종목. 수련시와 비슷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체육계 일각에서

체육단체장들이 체육에 대한 애정으로 단체를 이끌어나가야지, 염불보다 잣법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된다

“인적 및 시스템적 문제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가 시 체육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가맹단체협의회 역할을 강조하고,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성과를 이룰 수 있다”며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오익호 기자

이대엽 성남시장 당선자

“선거 기간 나타난 갈등 해소 위해 화합의 자리 마련하겠다”

프로필

- 1935.5.10
- (한)성남시장
- 제11, 12, 13대 국회의원
- 13대 국회 교통체신위원장
- 성남시 문화재단 이사장



-국회의원 3선과 성남지역 최초의 민선시장 재선에 성공한 소감은.
정치인생 30년을 살았습니다. 국회의원 3번을 하며, 국가에 봉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주시고, 아껴주신 지역 주민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봉사의 삶으로 채울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더 열심히 일해서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진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참여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산적한 성남의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성남시 최대현안과 해결방안은.
잘 아시다시피 수정.중원 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판교개발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연속성을 최대한 살리

고 추진 일정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제한의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 시민사회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선거 전후 불거진 각종 의혹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또 선거후 시민화합을 어떻게 도모하실 것인지.

선거 기간 중 근거 없는 음해로 인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무관함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야기된 갈등구조에 대해 지역의 어른으로서 포용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킬 생각입니다.

취임식을 통해 시민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이고, 그 외에 시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장을 마련해 시민과 대화하고, 서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화합의 풍경을 조성해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갈등구조를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하고 시민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 모두 성남을 사랑하고, 성남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성남발전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선 소감

존경하는 백만 성남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당선은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해주신 현명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 최초의 연임 민선시장이라는 소중한 고 값진 영광을 제게 주신 것은 시정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라는 여망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여러 번의 선거를 치러왔지만 이번 선거처럼 비방과 악성루머가 난무한 선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는 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지역 정치의 전통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바와 같이 시민여러분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듣고 오직 성남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분당 판교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께서도 선거가 끝난 만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시정에 협조해 주시고, 귀한 의견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억동 광주시장 당선자

“주인없는 광주 행정에 중심을 세우겠다”



프로필

- 1956년 10월 1일생(49세)
- 광주중합고등학교 졸업 (현 광주중앙고등학교)
- (전)제3·4대 광주시회의원 (4대 전반기의장)
- 경기도육구연합회장

-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은.
저의 승리는 유권자 여러분의 승리며, 새로운 광주를 열망하시는 위대한신 22만 우리 광주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기간에 있었던 대립과 갈등은 모두 펼쳐버리고, 새로운 광주 건설에 힘을 모아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와의 힘을 합쳐,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 현재 광주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대안은.
현재 광주시는 발달상수원 때문에 수

도법 한강법 환경정책 기본법 및 시행령과 고시등의 규제 약법으로 주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등 지역발전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현재 진행중인 1단계 광주시 오염 총량관리계획이 차질없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발전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2단계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총력을 기울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발달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시청사 이전에 대한 입장은.
행정타운 조성과 시청사 이전계획은 현재 65%의 토지매입률을 보이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배경을 놓고 부정적 시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광주를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를 위해 광주시는 새롭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도시구조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청사와 함께 등기소,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 소방파출소와 문화체육센터가 들어

설 행정타운에 따른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버스노선 배후시설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무원 사회를 개선시킬 방안은.
광주시 공무원들의 부정적 평가가 일부 있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고 개선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보다 더 대민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근무경력 3년 이내의 업무가 미숙한 임용자에 대해 실무교육 및 정신교육 등의 업무연찬을 강화해 새롭게 변모된 모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도 업무성격에 맞춰 근무기한을 조정하고 상하구조상의 연결성과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 광주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이의 해결방법은.
오는 2007년까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1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른 23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계획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을 할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도시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발달상수원으로 인해 수도법, 한강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시행령과 고시등의 규제약법으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투기지역은 계획적인 도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위한 규제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선 소감 ● ● ●

부족한 저를 인선 4기 광주시장으로 선택해주신 22만 광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의 승리는 유권자 여러분의 승리며, 새로운 광주를 열망하시는 위대한신 22만 우리 광주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기간에 있었던 대립과 갈등은 모두 펼쳐버리고, 새로운 광주 건설에 힘을 모아주시요.

여러분께서 선택해주신 시의원, 도의원, 도지사와의 힘을 합쳐, 약속드렸던 공약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주인없는 광주의 행정에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중심에 광주시민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광주시민의 상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주요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임 전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상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이 모든 일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외의 경쟁을 받았던 신동현, 이윤수, 송동원, 이우경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분의 염원을 겸허히 실천하는 깨끗한 시장이 될 것을 22만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성인오락실 '한 집 건너 한 집', 매년 증가세

가정파탄 등 폐해 심각 대책 '시급'

● ● ●

성남지역에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일 성남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성인오락실이 수정·중원구 등 성남 옛 도심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물리는 목 좋은 곳에는 아낌없이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자리잡고 있다.

2004년도에 310개였던 성인오락실은 지난해 말에는 366개로 급격히 늘었다.

올들어 증가추이는 더욱 두드러진 추세다. 특히 옛 도심인 수정·중원구는 더욱 심해 지난해 말 전체 오락실의 72.1%인 264개가 밀집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일단 문만 열면 매일 수 천만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최대 당첨금이 1회 2만원으로 제한된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의 경우 상어나 고래가 등장하면 연속으로 당첨될 수 있게 해놓고 수 백만원의 상품

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유인하고 있다.

상점권은 성인오락실 바로 옆에 위치한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도박이나 마찬가지로 다.

이 때문에 A모(49·수정구 수정1동)씨는 성인오락실에 빠져 순식간에 전세보증금 가운데 2천여만원이 넘는 돈을 날렸고, 일용직 근로자 B모(43·중원구 중동)씨는 가불금 300여만원을 보름도 채 안돼 성인오락실에 갖다 바치는 등 피폐사라는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더욱이 사행성 성인오락실의 경우 성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수정·중원지역에서 더

욱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의회 C의원은 "성인오락실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가정을 파탄으로 치달게 만드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성남시 전체가 도박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행정관청이 적극 나서 성인오락실에 대한 등록과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 문학도는 '나요 나' 제11회 성남시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개최

성남시 새마을문고 성남시지부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창작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함양을 도모키 위해 '제11회 성남시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대회참가 희망자를 접수한다.

다음달 3일 분당 중앙공원 연못공장에서 개최될 이번 대회의 ▲백일장은 시와

수필 ▲사생대회는 상상화, 풍경화, 포스터부문에서 경연을 치르며 작품의 주제는 행사당일 대회장에서 발표한다. 백일장과 사생대회는 각각 유치부, 초등부(저학년·고학년), 중·고등부, 일반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뉘어 개최되며 선정작은 성남시장상, 성남교육장상, 새마을회장상, 문고회장상 등 4개 부문

에서 시상한다. 대회참가 희망자는 기한 안에 성남시 새마을회관 내 성남시새마을문고지부(분당구 아담동 소재)에 방문 또는 전화(☎703-0033, 708-6901), 팩스(708-6902)로 접수하면 된다.

2006년, 국민건강보험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1일, 건강보험의 혜택이 더 크고 다양해집니다!

- ▶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약 45만명에 이르는 6세미만 입원 아동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 **65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확대적용**
전액 본인 부담이던 659개 항목에 대한 보험혜택 적용으로 최고 80%까지 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 **중재적 시술의 본인부담률 10%로 절감**
뇌혈관·심장질환자에 대한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 및 내시경치료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축소하여 중증질환의 치료비 부담이 30~50%까지 낮아집니다.
- ▶ **4대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 실시**
간·심장·폐·췌장 등 4대 장기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혜택 적용으로 장기이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험혜택 적용**
환자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항목에 9가지 질환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시스템 다이어트 프로그램 - '마르네뷰페'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들, 고민 끝

메이크업과 헤어에 맞춤 서비스도 제공

다이어트는 이제 전 세계, 전 인류가 참여한 전쟁이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운동을 할 시간은 없고, 스타벅스 카리멜 프라푸치노를 포기할 수는 더더욱 없는 여성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다이어트 보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과연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체중조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다이어트프로그램을 체험 취재해 보았다.

필자가 방문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서현동에 위치한 '마르네 뷰페 크레인스 클럽'. 헬리웃의 최고 셀러브리티 카메론 디아즈, 제니퍼에니슨은 물론 후주의 마돈나라고 불리는 카일리미노그와 빅토리아 베컴이 애용한다는 '시스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다.

마르네 뷰페에서는 비만의 근본적인 원인을 체내 독소 때문이라고 했다. 체내에 지방질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그 결과 독소가 생성되는데 지방질과 독소가 결합하면 체내 셀룰라이트를 고체화시켜 몸 속에 고착시킨다는 것.

마르네 뷰페 프로그램은 자연성분을 통하여 독소의 연쇄고리를 깨고 몸 안의 분비물을 밖으로 배출시켜 지방질을 줄이고 바디라인을 다듬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우선 마르네 뷰페의 가장 첫번째 단계는 상담과 식습관 지도.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이어트의 방법과 효과가 변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바디셰이프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 하는 것으로 여타 바디셰이프 제품들과는 다르게 마르네 뷰페의 바디셰이프 크림은 끈적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항도 진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향에 민감한 여성들도 무난히 소화해 낼 수 있을 정도였다.

바디셰이프뿐 아니라 전문 마사지사 의 마사지만으로도 온 몸의 피로가 사라

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음 단계는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온 몸에 붕대로 래핑하는 것. 마르네 뷰페에서는 도포하는 붕대에 바디셰이프 크림을 미리 흡수시켜줘서 총 두 번 바디셰이프 크림을 바르는 효과를 낸다고.

또 이 과정에서는 래핑을 통해 몸매를 다듬어주는 효과도 있다. 약 15-20분 정도가 소요됐다.

그 후에는 마라톤 30분 뛰는 것과 같은 칼로리를 배출시킨다는 원칙의 선 사우나에서 약 20분간 사우나가 뒤따랐다.

몸 속의 노폐물을 빼내고 몸의 탄력을 주는 단계로, 미국에서 직수입한 원적외선 사우나는 뜨겁지 않지만 충분히 효과적으로 팔과 노폐물을 배출시켰다.

뜨거운 사우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도 기분 좋게 사우나를 즐길 수 있었다.

눈에 띄는 단계는 그 다음, HR2 양자파동수를 마시는 단계였는데 이 물은 체내 주파수를 조정해 생체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실제로 양자파동수를 만드는 정수기는 현재 의료용으로 수입될 예정이라고.

그 후에는 핫 마사지 벨트를 벗어 두르고 온열 자석의자에 20분간 앉아 있었는데, 핫 마사지벨트는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한 모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해 개발한 미국 직수입품으로 효과가 뛰어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 단계에서는 배를 자주 움직여줌

로 인해서 다이어트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흔히 주부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배를 꼬집고 두들기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했다.

전체적 체형을 마친 후에는 약 1.5 Inch 정도의 체형변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사람에 따라 각자 효과가 다르긴 하지만 1.5-2 Inch의 효과가 보통이라고. 16회 기준 99만원이라는 가격만큼이나 매력적인 수치다.

크레인스 클럽 남욱희 부사장은 브랜드 다이어트 프로그램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하며 "특히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바스트업 크림 팩과 페이스업 크림 팩 등 몸매를 보정할 수 있는 마사지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크레인스 클럽에서는 또한 메이크업과 헤어 등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실시해서 복합적인 여성 뷰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하니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마르네 뷰페 크레인스 클럽 서현점
문의전화 : 031) 706-4666
웹사이트 : www.hrs777.com





이사가는 날,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선물
가스·점·검



[이사철 가스사고 예방캠페인]

- ▶ 이사할 때 가스시설의 점검 및 설치는 반드시 LPG가스 판매점이나 도시가스사 지역관리소로 연결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 ▶ LPG사용자는 판매점과 반드시 서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을 한 판매점과 거래해야만 가스사고 발생시 판매점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KGS 한국가스안전공사경기동부지사
www.kgs.or.kr /내선번호 1544-4500

5.31 지방선거 당선자

경기도지사



2.김문수 (54,한나라)
장남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병역미필, 제15·16·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구)

성남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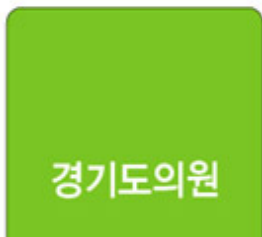


2.이대엽 (71,한나라)
정무직, 강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병역미필, 공무원, 현(민선3기) 성남시장, (당선시장)

광주시장



2.조억동(49,한나라)
광주시의회의원, 광주종합고등학교 졸업(현 광주중앙고등학교), 병역미, (선제3·4대) 광주시의회의원(4대전반기의장), 경기도육구연합회장



경기도의원



2.이병열 (45,한나라)
내과(신대), 강원대학교 건축과 1학년 재학중, 병역미, 현(나라당) 성남시 수성구 수석부위원장
성남시제1선거구 수진1동, 수진2동, 신봉1동, 신봉2동, 신봉3동, 단대동



2.장윤영 (47,한나라)
시의원,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병역미, 현(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제2선거구 태평1,2,3,4동, 시흥동, 고등동, 신촌동, 북정동, 산성동, 영지동



2.방명기 (48,한나라)
성남예을 회장, 강원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재학, 병역미, 중앙대학교 국어교육 대학원(경영교수)
성남시제3선거구 상대원1,2,3동, 하대원동, 성남동



2.박문수 (54,한나라)
상업,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 1년 재학, 병역미, 성남영남병원부회장
성남시제4선거구 중동,금광1,2동,은행1,2동



2.장정은 (38,한나라)
정치인, 강원대학교 졸업, 도의원
성남시제5선거구 이매1,2동,아남1,2,3동



2.이태순 (47,한나라)
정치인, (전)성남시의회의원(제2대,제3대), 병역미, (현)경기도의회(영남교육위원회 위원장)
성남시제6선거구 서현1,2동,수내1,2동,원교동,운중동



2.신계연 (42,한나라)
장남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출업, (전)한나라당 중앙당 여성국장, (전) 국회의원(현) 구의원
성남시제7선거구 정자1,2동,관곡1,2동



2.정재영 (52,한나라)
장남인,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2년 재학중, 낙성동형천우 의원, (전) 경기도의회의원
성남시제8선거구 분당동,수내3동,정자3동,구미동

성남시의원



2-가.남용상(39,한나라)
남부세외관장,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3기 재학, 육군상병, 한나라당 수성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성남시가선거구 수진1동,수진2동,신봉1동



1.문길한(48,열린우리)
시의원, 강원전문대학 1년 재학, 공군이병, 성남시의회의원
성남시가선거구 수진1동,수진2동,신봉1동



2-가.정용한(34,한나라)
가과, 여주대학 1년 휴학, 보충역, 국제계투기 유도연맹 대표
성남시가선거구 신봉2동,신봉3동,단대동



1.윤창근(45,열린우리)
장남인, 성공관대 2년 중퇴, 육군병장, 열린우리당 수성구당원협의회부위원장
성남시가선거구 신봉2동,신봉3동,단대동



2-가.이상호(43,한나라)
시의원,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육군병장, 태평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성남시다선거구 태평1동,태평2동,태평3동,시흥동,고등동,신촌동



1.최만석(36,열린우리)
장남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육군상병, 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
성남시다선거구 태평1동,태평2동,태평3동,시흥동,고등동,신촌동



2-나.이수연(56,한나라)
시의원,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차, 육군병장,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다선거구 태평1동,태평2동,태평3동,시흥동,고등동,신촌동



2-가.이재호(47,한나라)
장남인,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 1학기 재학, 공군일병, 성남발전 자치모임 부대표
성남시라선거구 태평4동,북정동,산성동,영지동



1-가.정종상(45,열린우리)
장남인, 학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3년 재학, 육군병장, 시흥병원소방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성남시라선거구 태평4동,북정동,산성동,영지동

범례 (우)=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노)=민주노동당 (국)=국민중심당 (무)=무소속



4. 최성은(32, 민주노동)
장단인, 신구대학교사학과 졸업, 푸른학교 후원회장
성남시라선거구 태평4동, 북정동, 산성동, 일지동



2. 유근주(65, 한나라)
장단인, 세종사이버대학교 1학년 재학, 병역 미필, 상대원1동 주민자치위원장
성남시마선거구 상대원1,2,3동



1. 지관곤(41, 열린우리)
시의원, 한신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병역 미필, (한)시의원
성남시마선거구 상대원1,2,3동



2. 한성실(60, 한나라)
남서울대학교, 건원교수, 수원대학교대학원 수료, (한)성남시자치행정사생태소장직무대행
성남시마선거구 상남동, 하대원동



1. 고희연(46, 열린우리)
요식업, 방송통신대4학년 재학, 병역필, 영진우라당경기도청소년원위원회부위원장
성남시마선거구 상남동, 하대원동



2. 김재노(49, 한나라)
(주)김진진대표, 수성고등학교교수 발족교 재학중, 병역필, 성남시생태체육협의회 이사
성남시사선거구 중동, 금광1,2동



1. 김유석(43, 열린우리)
시의원,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병역 미필, 미래제일학원장
성남시사선거구 중동, 금광1,2동



2. 황영성(51, 한나라)
신일광고기획대리, 서라벌고등학교 2년 중퇴, 병역미필, 한나라당상무위원회총무연구회 회장(전)
성남시사선거구 은행1,2동



1. 김시중(37, 열린우리)
장단인, 방송통신대행정학과졸업, 병역필, 열린우리당성남시당행정자치부특보위원장
성남시사선거구 은행1,2동



2-가. 박영애(49, 한나라)
회사원, 대졸, (한) 이매2동 주민자치위원, (한) 농협성남유동센터 문화홍보실장
성남시사선거구 이매1,2동



2-나. 이명화(47, 한나라)
정치인, 연세대 대학원 졸업, 병역필, (한) 성남시의회의원, (한) 진나라당 분당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부위원장
성남시사선거구 이매1,2동



2-가. 장대훈(47, 한나라)
자영업, 연세대학교 중앙문화학과 졸업, 병역 미필, (한)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사선거구 아람1,2,3동



1. 박문석(43, 열린우리)
(주)엠엔에스대표, 대학원졸, 병역필, (전) 성남시의회의원,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성남시사선거구 아람1,2,3동



2-가. 남상욱(31, 한나라)
회사원, 대졸, 병역필, (한) 한나라당 시민사회연대 위원회간사, (전) 수원활동집행기장 관리, 카운터사업부 - 마케팅 기획실
성남시사선거구 서현1,2동



1. 유광열(51, 열린우리)
제조업, (한)한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병역필, 사회복지학과 5학기 재학, (한)성남YMCA 이사, (한)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
성남시사선거구 서현1,2동



2-가. 김대진(59, 한나라)
정치인, 서울산업대학교 졸업, 병역필, (전)성남시의회 의원, (한)한국자유총연맹성남시 지부장
성남시사선거구 수내1,2동, 관교동, 운중동



2-나. 최광길(47, 한나라)
정치인, (한)한나라당 분당갑지구당원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한)한국중고등평상경기연맹 회장
성남시사선거구 수내1,2동, 관교동, 운중동



2-가. 안계일(48, 한나라)
장단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병역필, 정보통신사회의원, (전) 분당정보통신대교수, (전) 수원이매2동뉴스대교
성남시사선거구 정사1,2동, 금곡1,2동



2-나. 홍석한(46, 한나라)
(주)이래온라인 이사,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졸업, 병역필, (전)문화방송, (전)이매동TV 근무
성남시사선거구 정사1,2동, 금곡1,2동



1. 정기영(38, 열린우리)
가사, (한)성남시장애인연합회사무국장, 병역 미필, (한)열린우리당경기도당장애인위원회
성남시사선거구 정사1,2동, 금곡1,2동



2-가. 박권중(46, 한나라)
자영업, 건문대학교, 병역필, (전)제3~4대 성남시의회의원
성남시사선거구 분당동, 수내3동, 정사3동, 구미동



2-나. 이형만(55, 한나라)
정치인, 대학원졸, 병역필, (전)성남시대학생연합회 초대회장, (한)성남시의회의원
성남시사선거구 분당동, 수내3동, 정사3동, 구미동



1. 김혜숙(42, 열린우리)
주부, 한일여자실업고 졸업, (한) 성남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
성남시사선거구 분당동, 수내3동, 정사3동, 구미동

경기도의원
광주시



2. 이건화(44, 한나라)
도의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병역필, 외교인문학과 1학기 재학, ※ 제6대 경기도의회의원, ※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광주시제1선거구 퇴촌면, 남중면, 중부면, 강안동, 송정동, 광남동

5.31 지방선거 당선자



2.강석오(50,한나라)
 도의원, 동원대학 e-비즈니스과 졸업, 병역필,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부대표
광주시제2선거구 오모음,초월읍,실촌읍,도척면



2-가.이상택(49,한나라)
 시의원, 광주종합고등학교 졸업, 광주중영고등학교, 병역필, 제4대 광주시의회의원, 광주종합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광주시가선거구 퇴촌면,남중면,중부면,송정동



2-나.장용범(53,한나라)
 시의원, 도수초등학교 졸업, 병역미필, (전제4대 광주시의회 간담가/부의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광주시가선거구 퇴촌면,남중면,중부면,송정동



2-가.김영훈(50,한나라)
 시의원, 광주종합고등학교 졸업, 광주중영고등학교, 병역필, 광주시의회의원, (전) 남광주루터리 초대회장
광주시나선거구 경안동,광남동



1.이성규(49,열린우리)
 자영업, 광남초등학교 졸업, 병역필, (전)광남동주민자치위원장, (전)광주군환경대책공동위원장
광주시나선거구 경안동,광남동



2-가.구효서(49,한나라)
 건설업,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부 4학년 재학, (재)한국산업교육원 강사, (전)한나라당광주시지구당 부위원장
광주시다선거구 오모음,초월읍,실촌읍,도척면



2-나.김진구(47,한나라)
 대법정물건자 대표, 광주종합고등학교 졸업 (전 광주중영고등학교), 병역필, 초월읍 제향군인회장, 광주시육구연합회 부회장
광주시다선거구 오모음,초월읍,실촌읍,도척면



1-가.김찬구(42,열린우리)
 자영업, 신구전문대학 육산학과 졸업, (전)신구대학), 병역필, 남광주지건원반대투쟁위 부위원장, 오모음 오모농업협동조합 대의원
광주시다선거구 오모읍,초월읍,실촌읍,도척면

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 압승 ... 한나라당 강세 지속 여부 관심 성남시장 이대엽, 광주시장 조억동 당선



시종일관 한나라당 우세속에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도위원을 전지역에서 모두 석권하는 기세를 보였다. 기초의원 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치열한 접전 끝에

중원구와 수정구에서 2위를 차지해 당선권에 힘겹게 진입했다.

성남시장에는 이대엽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인 17만7천531표(54%)를 얻어

7만8천59표(23.8%)를 얻은 열린우리당 이재명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도의원은 8명 전원 한나라당이 당선됐으며 당선자로는 수정구 제1선거구에 이병열(54.6%), 제2선거구에 장운영(44.5%), 중원구 제3선거구에 방영기(47.7%), 제4선거구에 박문수(44.8%)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본당구 제5선거구는 장정은(74.1%), 제6선거구는 이태순(77.9%), 제7선거구는 신계용(75.3%), 제8선거구는 정재영(73.5%) 후보 전원이 73%이상을 받아 본당구는 한나라당 강세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함께 시의원 당선자는 수정구 가선거구에 한남용삼, 우)문길만 후보가 당선됐고, 나선거구는 한)정용환, 우)윤종근 후보, 다선거구는 한)이상호, 한)이수영, 우)최만식 후보, 라선거구는 한)이재호, 우)정종삼, 노)최성은 후보가 당선됐다.

중원구 마선거구에 한)유근주, 우)지관근 후보, 바선거구에 한)한성삼, 우)

고희영 후보, 사선거구는 한)김재노, 우)김유석 후보, 아선거구는 한)황영승, 우)김시중 후보가 당선됐다.

본당구 자선거구는 한)박영애, 이영희 후보, 차선거구는 한)장대훈, 우)박문석 후보, 카선거구는 한)남상욱, 우)윤광열 후보, 타선거구는 한)김대진, 최윤길 후보, 파선거구는 한)안계일, 홍석환, 우)정기영 후보, 허선거구는 한)박권중, 이형만, 우)김해숙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 광주시는 한나라당 조억동 후보가 광주시장으로 당선됐고, 도의원으로는 제1선거구에 한)이건희 후보, 제2선거구는 한)강석오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시의원에는 가선거구에 한)이상택, 장용범 후보, 나선거구는 한)김영훈, 우)이성규 후보, 다선거구에는 한)구효서, 김진구, 우)김찬구 후보가 광주시를 이끌어갈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역전 5.31 현장 리포트

시인의 대표를 뽑는 5.31지방선거가 끝났다.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선거에서는 달라진 선거제도 만큼이나 후보들의 표심 잡기도 눈길을 끌었다. 13일간 진행된 선거전에서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놓았다. 그럼에도 후보들의 마음은 바쁘지만 하다. [편집자 주]



- ① "한나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강선장 수정구 운영위원장 유세차량으로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 ② "김미혜연이 성남시를 바꿀 수 있어요" 민주노동당 김미희 성남시장 후보가 재래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③ 외우~~기호는 2번, 운동원의 밝은 모습이 아름답다
- ④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이 기초의원을 지원하기위해 유세차량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⑤ 어대요? 이런 댄스 출췄? 민주당 운동원들이 율동을 통해 유권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 ⑥ 꼭지점 댄스, 열린우리당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진대제 후보가 꼭지점 댄스를 추고 있다.
- ⑦ 성남시 기초의원 정기영 후보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부인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⑧ 자~ 다함께 꼭지점 댄스를 댄요, 최만식 열린우리당 기초의원 후보
- ⑨ "얼췌 좋다" 한나라당 이대엽 성남시장 후보도 신이 나서 꼭지점 댄스 율동에 힘싸고 있다.
- ⑩ 성남시 기초의원 홍준기 후보가 특이하게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해 주변을 즐겁게 하고 있다.

성남영어마을 성추행 '논란'

성남영어마을 '초등생 성추행' 파문

해당학부모, 진상조사 요구... 당사자 A씨, '억울하다'

성남지역 한 초등학생들이 영어마을 체류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되고있는 성남영어마을은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최초로 개원한 곳이다.

성남영어마을성추행대책위원회이하 성추행대책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성남영어마을에 입소했던 성남 D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중 일부가 한국계 미국인 영어교사인 A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일 학부모들이 참관일을 맞아 영어마을에 방문해 설명회를 갖던 중, 일부 여학생들이 'A씨가 영어 체험활동을 이유로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있다'고 불쾌감과 두려움을 호소해와 진상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학부모들의 항의에 성남영어마을은 자체 조사결과 J선생이 여학생 9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해 불쾌감을 준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하고, "8일경 피해여학생들의 학부모에게 K본부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학부모들이 사과문과 함께 해당교사 징계, 공개사과글 게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야기하는 프로그램의 폐지 및 조정등의 조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 19일자로 A교사를 해임

했다고 밝힌 것 이외에, 현재 공개사과글 게시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영어마을측을 비난했다.

이와관련 참교육학부모회 성남지회 윤연숙 교육부장은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과 청소년 영어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개원한 성남영어마을을 체험교육이 초등학생 성추행이라는 끔찍한 사건으로 지역학부모와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 등 사후조치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A씨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소견서를 통해 "이런 일을 겪는다는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할 뿐"이라고 피력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것은 이해하지만 자신을 파렴치한 가해자인 것처럼 몰리는 것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저에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두명의 아이가 안 좋은 소문을 전체에 퍼뜨린 것 같다"고 말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모르고 얘기했다가 너무 커지다보니 겁이 나서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것 같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함께 수업했던 한 동료 영어교사도 "만약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나서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그 교사는 단 한번도 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하게 만진 적이 없으며 아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관련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해당교사를 해임은 물론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A씨는 사직과 함께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등 양측 주장이 팽팽이 진심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지역 여성·사회단체는 성남시장 면담을 통해 ▲초등학생 성추행 공동 진상 조사, ▲관련 책임자 엄중 분석, ▲공개 사과 및 사과글 게시, ▲영어마을 교사의 자격 및 경력 공개, ▲영어마을 전문 상담교사와 입소 초등학교 교사 배치, ▲영어마을 교사의 자질향상과 채용 투명성 확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강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나눔의 이웃 결식아동우원의

"작은 정성 모아 큰 사랑으로..."

TEL 031)702-8583 FAX 031)702-558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97-11호

후원금 계좌번호 ■KB국민은행 366501-01-057621 ■우리은행 1005-000-911991

The 1st MASTERS OPEN
National Taekwon-do Championships

제1회 스승님배 전국오픈태권도대회

2006. 6. 24 ~ 25 (2일간)
성남 실내체육관

Taekwondo



- 대 회 명
제1회 스승님배 전국오픈태권도대회
- 주최·주관
스승님배 태권도대회조직위원회

월요테마기획- 성남희망프로젝트①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아요”

주 3일 투석에 당뇨 합병증. 눈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

성남일보의 창간 6주년을 앞두고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성남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게재되는 월요테마기획은 (주)성남일보 회장 김중근과 사단법인 한국참사랑복지회(이상장 김광배)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성남일보가 지역신문으로는 최초로 운영에 들어간 성남희망프로젝트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지역 노인복지의 실태를 취재해 독자들에게 전하고 독자들은 어려운 어르신들을 간접적으로 도울수 있는 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는 '성남희망프로젝트'는 한국언론재단의 인턴지원 지원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월요테마 기획 취재는 한국언론재단이 지원하는 인턴기자인이나래 기사가 취재를 담당하게 됩니다. 1년간 진행되는 성남희망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보고서를 통해 지역노인복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어 주기 위해 마련한 성남희망 프로젝트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강 할머니. 오랜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장부 보조로는 병원이 입수도 못한다.

처음 경경임 할머니에 대해 접한 정보는 '당뇨합병증으로 신장병이 발병하여 주 3회 투석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한 눈에도 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나기 전부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찾아간 경경임 할머니 댁. 건강은 어떠시냐고 묻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할머니는 병색이 완연했다. "지금은 당뇨합병증에다가, 눈도 아예 안 보이고... 그림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눈 감기 직전인가봐. 이러다가 눈 못뜨고 그냥..." 잠시 말을 끊는다. 금세라도 눈물이 쏟아질 태세다. "다리도 당뇨로 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지. 이렇게 높으면 앉았으니깐 내려가서 서기라도 좀 낫지... 땅이었으면 일어나질 못했죠. 그렇게 심하게 아파"

할머니가 당뇨 진단을 받은 것은 91년. 벌써 15년째 당뇨로 투병 중이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당뇨가 심해서 큰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형편이 안되니까 약만 지어 먹었지." 결국은 가난이 병을 키운 셈이다.

"근데 그러다보니 신장병이 오더라구" 당뇨병이 무서운 건 당뇨병 그 자체

보다 당뇨병이 불러오는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였다. "투석은 죽을 때 까지 평생 해야 해" 주 3회, 한 번에 네 시간씩 걸리는 투석은 체력이 약한 할머니께는 큰 부담이지만 신장 두 개를 모두 들이낸 상태에서는 대안이 없단다.

게다가 위암으로 위를 절제해 낸 이후로는 먹을 것도 마땅치 않다. "지금도 밥을 조금만 먹으면 배가 이렇게 부풀어. 밥을 씹먹으려고 해도 만들어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아서. 지금도 무엇이 그냥 왔다갔다만 하지 사람을 똑바로 못봐요" 소화가 안된다는 이유 말고도 밥을 씹먹을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당뇨 합병증으로 눈조차 보이지 않게 된 것.

"인과를 갈 때마다 10만원씩 가지고 가야해. 두 번 가고 돈이 없어서 못 갔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치료만 여섯 번 받았다고 그랬는데..." "열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느라 갖고 싶은 만큼 상황이 더 이상 나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생활고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다.

"수입은 아무것도 없고. 월 30만원 나

오는 거(기초생활수급비)로 방세 25만원 주고, 직년까지는 딸이 미성년자라서 한 50만원 받았는데, 올 해부터 25만원으로 꾸였어" 어렵게 말을 이어가는 할머니의 한숨이 깊다.

"아이고, 같이 있어도 아주 내놔 버렸어. 그건 엄마 생각도 없어" 딸 얘기가 나오자 경경임 할머니는 안색이 더 어두워졌다. 원래 친하지 않은 모녀사이라 대화가 없기는 했지만, 얼마 전 할머니의 보조금을 딸이 몰래 인출해 쓴 것을 알게되면서 사이가 더 소원해졌다.

"처음에는 꽤 간 줄도 몰랐어요. 저 방에 바닥 이렇게 쓰느라고 보니까 풍장이 하나 있는데 바짝 데고 보니까 내 것 같아" 힘이 없이 낮았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격하게 높아졌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어휴 벌써부터 꽤 갖는테요 그러더라구. 투석하는 것도 6천원씩 투석비가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찾아서 써버리고. 그래서 지금 죄가 있으니까 나한테 말도 않는데 나는 그것을 입 벌리면 사이가 더 벌어질까봐 말도 못하고 있어요"

자식 실은 소리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에 있을까. 경경임 할머니 입에서 나오는 한탄은 오히려 안타까웠다. "엄마가 이렇게 생겼다고 창피해하는 것 같아" 할머니의 한숨에는 눈물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배어있다.

경 할머니가 손님을 배웅하기위해 몸을 일으킨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벽을 잡고 온 힘을 팔에 실는 모습에 갑자기 눈물 활짝 올라온다. 병든 몸을 이끌고 세상과 싸워야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할머니, 우리들의 어머니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아주는 이웃들이 있기에 아직 할머니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제 우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야 할 때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기에,

우리의 도움이 할머니의 삶을 밝히는 희망이 될 것이기에.

■후원 : 예금주 한국참사랑복지회
 농협 172-01-251420
 우리은행 302-226650-01-001
 하나은행496-910003-51205
 ■문의 : 참사랑복지회
 031747-2886 차순희 팀장

이색지대 - 문화카페 '데이지'

그곳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문화 한 눈에

요즘 자천에 깔린 게 커피숍이고 카페다. 언뜻보면 오히려 음식점보다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듯 하다. 이렇게 카페가 많아지다 보니 끼어들도 무언가 자기들만의 특색을 가지고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눈이 너무 높아져버렸기 때문일까?
그러던 중 관심을 끄는 소식을 들었다. 성남문화연대가 열린문화카페를 표방하는 카페 '데이지'를 오픈했다는 것. '상업적 이윤을 목표로 하는 일반 카페들과는 달리, 함께하는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프로젝트라는 소식을 듣고 데이지를 방문했다.

열린문화카페 '데이지' 오픈

데이지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느끼는 것은 '다른 카페와 별다른 것이 없네' 였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처럼 와인색, 연보라색 의자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도 순간. 한 번 더 고개를 돌리자 타 카페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중앙에 위치한 무대. 한 가운데 자리를 잡은 드럼부터 각종 악기들과 옆에 우뚝 선 앰프가 문화카페라는 데이지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였다.

벽에는 유난히 사진이 많이 걸렸는데 이 사진은 성남문화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아마추어 다류 사진 작가들의 작품이라고 했다. 벽마다 걸지어 걸린 사진은 아마추어 작가들의 소박한 열정을 그대로 담고 있어, 소박하지만 정겨운 어엿을 적 동네 친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은 공간이라기 보다는 사람이었다. 서빙을 위해 오가는 직원이나 앉아있는 손님이나 전혀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 꼭 서부의 무법사 같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열심히 테이블과 바를 오가는 사람, 긴 머리를 짙은 무고 음료를 따르고 있는 남자 등 하나같이 개성이 뚜렷해 보이는 건 카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진이 전부 성남문화연대에 소속된 문화인들이기 때문

인 듯 했다.

열린문화카페 특색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기부터 남달라 보이는 문화카페 데이지가 정말 다른 카페들과 다르다고 자부하고 있는 차이점은 바로 '열린' 문화카페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문화카페라고 이름붙인 카페들은 대부분 가수들이 나와 라이브 공연을 하는 정도였고 그만큼 가격도 비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데이지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꾸며가는 문화공간을 지향한다. 성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를 사랑하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만큼 지역 내에서 문화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라이브 카페보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가격을 낮췄다는 것도 데이지만의 매력이다.

이처럼, 열린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데이지'는 문화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사진, 그림, 시화전, 형질인형, 설치미술 등의 전시회를 상시 열 예정이고, 색소폰, 클래시, 통기타, 만돌린, 재즈 등의 음악연주도 병행한다. 문화연대 회원들이 여는 문화강좌도 있다. 시낭송, 역사기행, 다도 강좌 등 좋은 강좌들을 차갈만 내면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월, 화, 수요일은 연주와 시 낭송 등으로 꾸러가는 <열린무대>, 목요일은 <포크공연>, 금요일은 <팝공연>, 토요일 오전은 <조민숙 노

래교실(am10:30)>, 오후는 <데이지가요제>등 매일 색다른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성남문화연대는 어떤 곳?

이렇게 알토란같은 공연들을 벌이고 있는 '성남문화연대'가 대체 어떤 모임인지 궁금증이 들었다. 성남문화연대가 스스로 말하는 성남문화연대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문화축제를 매달 열어나가는 문화생활공동체이자 문화주권운동'이다.

성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의 조합이자, 성남의 문화활동과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단체인 것이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문화장터'를 만들고 우리의 문화주권을 찾아가는 작업을 함께하는 친구, 그것이 성남문화연대이다.

수년전부터 결성되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4년 7월. 그 후로 매 달 공연을 열어 시민의 결의로 다가가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성남문화연대는 '함께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 가 아닐까?

이내려 기자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 추진위 성락손 위원장

“중동을 성남의 일등마을로 만들겠다”



성락손 위원장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집창촌 지역인 중동지역도 재개발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이 지역은 이미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뒤서리를 맞아 업소수가 종전의 40% 밑으로 줄었다.

또한 인근이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이라 교육과 청소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는 절실한 편이다. 집창촌으로 인한 주변환경은 물론 혐오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지만 성남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앉아서 행정만 할려고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만이다. 현실적으로 성남시가 나서지 않으면 재개발 계획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한 주민은 성남시 공무원들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자기들(공무원) 이곳 중동에서 아이들 데리고 살면서 학교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실제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살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성남시에 기대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말을 걸어 부치고 나섰다. 성남시가 나서지 않으면 주민 스스로 재개발을 통해 지역 상권과 집창촌을 없애는 것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중심상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30여년을 중동지역에서 살아온 성락손 씨가 있다.

(가칭)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중동지역을 성남 구도심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가 있는 최고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현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1구역은 성남 재개발구역 21곳 중, 중2구역과 더불어 중심상업지구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경기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다. 계획대로라면 된다면 신용역을 포함해 성남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의 탈바꿈이 기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추진은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다.

사유재산이므로 개개인의 이익을 충족해야 하지만, 지금 중1구역은 큰 도로변쪽으로 대부분 외지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

고 이들은 성남의 미래나 청소년들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의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80% 동의를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당초 성남시에서 86년도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97년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창촌을 양성화 시켰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뒷거래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겠다는 성남시의 발표는 이러한 도원중1구역 사업추진을 이끌고 나가는 주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가칭)추진위원회는 “현재, 대로변 상가주들은 개발을 하면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대로변만 손해를 본다면 정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개발 방식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모인 성락손 위원장 외 추진위원 일동은, 그냥 재개발을 하기위해 모여든 주민들이 아니라, 그동안 집창촌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집창촌으로 인해 청소년 발전을 염에서 지켜왔던 정분인들인 만큼, 특수지역으로 인정하여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성남시의 지원을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은 영원한 슬럼가이고 집창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성 위원장은 만약 이곳이 탈바꿈이 될 수 있다면 성남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하고, 분당과 서울로 향했던 시민들이 다시 성남 중동으로 돌아와 살 수 있다며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주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현지 주민들 중심인 6인의 발기인으로 시작된 추진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주민들에게 소식지를 배부했고,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이란다. 그러나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지는 얼마되지 않았지만 벌써 40%선에 근접했고, 외지인 빼고는 대부분 주민들이 흔쾌히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외지인들 대부분이 당장 이익에만 매달려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20년, 30년 살았던 이웃들도 나쁜 소문들만 듣고 무슨 큰 이익이 있어 매달리는 것처럼 볼때가 가장 서럽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그들의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명 한명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위원장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성남 중동에 사는 주민들이 집창촌에 대한 이미지를 벗고 당당하게 새로운 중동을 만드는 것이란다. 또한 내친김에 새로운 지명까지 바꿨으면 하는 것이 성 위원장의 희망이다. 여기에 성남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으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만큼 재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단대동지부 '생일상 잔치' 화제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 축하 드려요”



것은 작년,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생일 당일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합동으로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보니 정작 당일에는 매우 외로워 하시더라구요” 이 회장은 어르신들에게 당일날 생일상을 차려드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태어난 날 미역국 한 그릇 끓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게 되면서부터 회원들은 손수 만든 음식을 싸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직접 찾아간다. 지난달 18일에도 역시 회원들은 단대동의 한 집을 찾았다. 71세의 박순자 할머니가 비슷한 연배의 할머니 세분과 함께 생활하시는 집이다.

이 날 생일을 맞은 박순자할머니를 위해 회원들은 미역국에서부터 떡, 잡채, 케익까지, 말 그대로 한 상 근사하게 차려냈다. 떡 벌어진 잔칫상을 보며 할머니들이 함박웃음을 지은 것은 당연지사. 이명순 회장은 “가끔 우시는 분도 있다”고 전한다. “너무 좋아서 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별 것 아닌데 싶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아하시면 저희는 보람을 느끼죠”

현재 민통 단대동지부에서 생일상을 차려드리고 있는 노인인 14명. 한달에 한

두명 꼴로 생신상을 차리는 셈이다.

이것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란다. “사실 올해는 날씨 좋은 날을 하루 잡아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마침 지방선거가 있어서 포기했어요”

올 연말에는 여행을 가던가, 아니면 모두 모시고 잔치라도 한 번 여는 것이 단대동지부 회원들의 자그마한 소망이다. 이러한 소망에 힘을 보태듯, 이 날 생일잔치에 참석한 민통성남시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금일봉을 전달해 회원들의 선행을 격려하기도 했다.

일년에 한 번 생일상을 차리는 것도 부족해 여행을 가고 잔치를 열 계획을 짜는 회원들을 보면서, 노령화시대에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노령화가 가속되면서 노년인구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생률이 감소하는 데에 비해 노인층이 증가하면서 노년인구를 부양할 청년 및 중장년층이 없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독거노인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 주변에도 눈을 돌려보면 혼자 혹은 노부부만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적지 않다. 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독거노인은 단순히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있는, 그리고 해결해야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외로움, 경제적·사회적 문제보다 찾아주는 사람 없는 외로움이 더 무섭다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생일상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단대동지부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명순 동회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주변의 독거노인을 돌아보기 시작한

“늙어도 ‘예쁜몸매’ 만들래요”

분당구보건소, 실버몸짱만들기 운영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 도모를 위해 ‘실버몸짱만들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참가 희망 노인정 10개소를 선착순 모집한다.

오는 7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실버몸짱만들기’ 프로그램에는 분당구보건소가 양성한 노인운동전문지도강사 10명이 투입돼 10개소 노인정 총 200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요통, 경부통, 오십견, 각종 퇴행성 관절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

료를 위한 각종 운동요법 및 명상요법 ▲유연성 증진을 위한 자가 관절가동범위 운동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요법 ▲균형 강화를 위한 운동요법 ▲통증 완화를 위한 명상요법 등을 지도한

다. 20명 이상의 노인 참가가 가능하고 실버 몸짱만들기 운동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정은 기한 내 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729-5371)으로 참가신청하면 된다.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실버 몸짱만들기 운동”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내 생활체육인 중 요가지도자들을 노인운동 강사로 양성하고 있다”며 “노인웰빙운동을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유연성과 근력을 향상시키고, 노인 낙상사고를 방지하는 등 노인들의 일상생활 가능범위를 확대해 노인들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권 성남에서 발급해 줍니다”

6월 1일부터 여권민원실 개소

최근 외교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는 성남시는 1일부터 분당구 아담동 소재 종합운동장에서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민원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여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던 여권 발급 기간이 10일 이내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 성남시를 비롯한 용인·이천·광주·하남시 주민들은 경기도청이나 서울시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성남시는 “여권발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인근 송파구나 서초구를 방문해 여권민원 신청을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 외교교통상부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개소를 적극 건의한 바 있으며, 여권관련 민원인이 찾기 쉽고 주차 시설이 용이한 탄천운동장 1층에 170여 평 규모의 여권민원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휘만 성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협회 회장

“성남시와 주민함께 추진하는 순환재개발사업이 대안이다”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는 성남 본시가지는 강남권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 등 좋은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판교신도시 동시 분양에서 떨어진 낙침자들을 중심으로 기존 시가지 재개발사업구역내 부동산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가격도 덩달아 치솟고 있는 형세다.

이와 같이 개선된 외부적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민선4기의 뜻을 달고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성남시는 기존 시가지와 분당 및 판교 신시가지들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구시가지들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은 교육과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의료 및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의 획기적 확충일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가 민영재개발사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가 높은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기존시가지에도 적정량 공급할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존 시가지는 판교나 용인보다 뛰어난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판교·분당 못지 않은 주거단지로 크게 각광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남시의 분위기로 보아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 의식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기대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사업의 불이 잡혀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세입자 비용이 타 시군보다 높은 성남시의 경우 전세가격 및 서민주거안정 차

원에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필요성이 큰 것을 인정하지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는 사업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들임에도 이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추진되어 가는 재개발 사업을 바라보며 큰 아쉬움을 갖게 된다.

수정구와 증원구에는 5곳의 공동주택 건설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13곳의 철거재개발 사업지구가 예정되어 있는데(성남시 기본 계획안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공사만이 시행이 가능한 5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공동주택건설방식)와 증3구역, 단대구역 등 1단계 재개발사업구역의 시행은 도촌동과 판교의 임대아파트를 이주단지로 확보한 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토록 하고, 나머지 9군데의 철거재개발지구의 사업은 성남시가 중앙정부와 협의 후 시행 예정인 송파신도시내 임대아파트와 5천~1만세대 여수동 행정타운내 1천세대 등 약 6천~1만1천 세대분의 시영아파트와 구시가지내 공가 등을 적극 이주단지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합시행의 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사업이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발의지와 참여로 인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원칙임에도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면 이는 결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수정·증원구의 재개발문제는 기존 시가지의 학교 등 교육문제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오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병원 및 판매시설 등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해 신·구시가지들 균형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허송세월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순환재개발이라는 타당공론으로 세월만 흘러버리게 된다면 다시는 기존 시가지가 균형을 이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민선4기의 새로운 선장으로 선출될 성남시장에게 던져진 과제는 '시민과 성남시가 함께 추진하는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완벽히 성공함으로써 수정·증원구와 분당·판교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연 이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며 재개발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여부에 성남 기존시가지의 발전과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오늘도 관계 부처 공무원과 성남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도시계획 전문가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를 비롯한 주택공사 등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들 사이에 토론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귀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젊음의 전당!

경원대학교로 오십시오!

www.krforum.net

“앞선 재테크 정보, 멋진 강의, 재미있는 커리큘럼, 최상의 교육환경”
부동산에 대한 활용기법과 투자전략 노하우 그리고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까지!
부동산 최고 전문 감사인에 의한 명쾌한 강의와 해법제시!
이제 CEO들의 부동산 비즈니스 교육은 경원대학교에 맡겨 주십시오!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최고위과정
T.(031)755-4334 교육담당 / 권영환 과장

정춘식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회장

“서로 믿고 사랑하는 공동체 건설에 앞장 서겠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 수입이 없는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조그마한 정성을 나누어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어 용기와 힘을 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응원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여러분과 굳은 일 마디않고 일선에서 북북히 봉사해 주시는 1천8백여 회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8일 취임 이후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의 시급한 과제는 '회원배가운동과 조직의 안정화 및 조직강화'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 협의회를 과거에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과감히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정직한 계

인·더불어사는사회·건강한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국민정신의 일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의식개혁운동에 숭선수범하고 있으며 예의바르고, 친절하고, 질서를 지킬 줄 아는 문화생활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사랑·이웃사랑·우리고장사랑·나라사랑을 위한 사랑의 실천운동'과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고 지역감정이 없는 바른사회 운동'과 '이웃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 운동'에 숭선 수범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으며 인정이 넘치는 사회와 원리와 원칙으로 질서와 규범·예의범절을 지키며 겸허와 친절로 서로 양보와 아량으로 존반과 책력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화합은 번영의 길이며 불화는 파멸의 길임을 명심하여 관용과 이해로 분열을 막고 근면과 검소한 생활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화합하는 사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우리 모든 회원은 도덕성 회복운동과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능률적인 사회와 근면과 검소한 생활로 풍요로운 사회, 사랑과 감사로 화합하는 사회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두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실천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에 10% 절약이 내일에 큰 보탬이 되며 이 작은 것들이 모여면 큰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는 아침 7시 30분부터 거리질서과도 활동을 시작으로 국토 대청결운동, 4대질서 지키기, 교통사고예방, 소비절약, 자연보호 및 행복질서 캠페인, 청소년 선도 활동 등 수많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질서있고 깨끗한 우리고장 만들기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가난에 쪼들리고 있는 수입이 없는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조그마한 정성을 나누어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어 용기와 힘을 실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정직하고 화합하는 따뜻한 본 협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성남일보** 를 치세요

성남·광주지역 뉴스를 성남일보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성남일보 snilbo.co.kr • 뉴스데이 newday.or.kr

'분당차여성전문병원'

국내최대 여성병원 '분당차여성병원' 개원

5,000여 평 규모 산부인과, 소아과, 산후관리센터, 비만클리닉 등 완비



분당에 국내 최대규모의 여성전문병원이 들어선다.

포천중문의대·차병원그룹(이사장 차경섭)은 분당차병원 옆에 총 공사비 250억을 들여 지상 5층, 지하 5층 연면적 5천평 규모의 '분당차여성전문병원'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원하는 '분당차여성전문병원'은 산부인과를 비롯 부인비뇨과, 소아과, 맞춤분만센터, 모자병실, 황토팜, 불임센터, 산후관리센터, 비만제형관리

센터 등을 갖춘 국내 최대 모자병원이다. 이번에 개원하는 산부인과는 부인비뇨과, 복강경, 고위험임신, 비만치료, 산후관리, 폐경기 클리닉 등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고, 특히 엄마뱃속의 태아가 가질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태아치료센터'도 갖췄다.

특히, 의사가 산모를 직접 찾아가 진료하기 때문에 산모가 움직이지 않아도 진통, 분만, 회복 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 'LDR시스템(선진형 원

스톱 진료 및 분만시스템)'을 도입, 산모와 보호자가 모든 분만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엄마와 아기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모자동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전문 간호사 및 영양사 상주, 산모의 개인별 체질에 맞는 한방산후보양 제공 등 산후관리까지 철저히 이루어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아과는 미숙아 클리닉,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 비만·영양클리닉, 소아 성장 클리닉, 소아건강검진 클리닉 등을 운영하며, 국내 최초로 소아전용 폐기능 검사를 도입하는 등 소아 환자만을 위한 자체 특수 검사실을 별도로 운영한다.

외부자극에 특히 민감한 산모와 신생아, 소아환자의 건강을 고려해 수술실, 분만실,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등에 세균증후군 방지를 위한 친환경 나노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신세대 산모들을 위해 전 병실마다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구축하는 한편, 병원 내부 시설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아늑하게 연출했다.

'분당차여성전문병원' 초대병원장에는 국내외 부인암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전서울아산병원 목정은 교수가 부임했다.

목정은 교수는 서울중앙병원 부원장, 강릉아산병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40여 년간 부인암 치료와 연구에 헌신해 온 세계적 권위자다.

목정은 분당차여성전문병원장은 "분당차여성전문병원 개원을 통해 수지, 용인, 판교, 이천 등 수도권 중·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여성·소아환자 및 산모에게 차별원만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스किन케어, 성형, 미용시술 등 여성을 위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집약해 명실공히 '여성토탈케어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 오픈을 기념해 꾸집한 온라인 이벤트도 펼쳐진다.

6월 말까지 분당차병원 홈페이지(<http://bundang.chamc.co.kr>)에 접속, '빈칸 맞추기 + 개원 축하 한글 리플달기'와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수기 공모'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 및 선정을 통해 산후관리센터 무료이용권, 비만관리센터 전신관리 무료이용권, 종합건강검진권 등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국민건강 운동실천 Campaign 열린다

대한운동사회, 17일부터 양일간 개최

대한운동사회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T Center에서 '국민건강증진 운동실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민건강 지킴이 운동전문가 단체인 대한운동사회가 마련한 행사로 국민들의 운동 실천율을 높이는 한편,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올바른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

다. 행사내용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운동상담, 운동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건강상태 및 자신에게 맞는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7회 중원구민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성남시 중원구는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 보급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해 '제7회 중원구민 건

강달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오는 4일 오전 7시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건강달리기 대회는 '여유와 즐거움이 넘치는 살기 좋은 중원 만들기'를 주제로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반한지점인 하대원동 옛 성원아파트 앞까지 왕복 약 4.5km 구간에서 펼쳐진다.

중원구단체장연합회가 주최하고 중원구가 후원하는 이번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간소복에 운동화를 착용하고 행사 당일 오전 7시까지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으로 나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를 위한 대회 기념품으로 T-셔츠 2천 5백점과 드럼세탁기, 컬러TV, 식기 세척기, 자전거, MP3 등의 다양한 경품도 준비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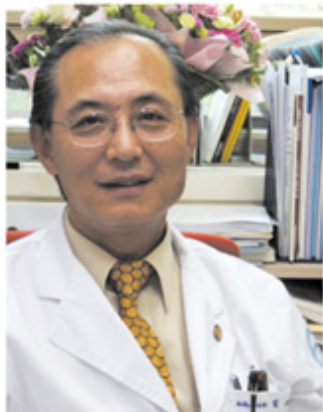
구는 이번 대회는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집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순위를 가리지 않는 대회이니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족단위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데이 광고문의
031)721-9922

분당차병원 임규성 박사

약주로 인한 간기능 이상시 금주 필수

“맥주 한잔만 마셔도 온몸이 붉어져요”



이렇게 호소하는 29세의 여 회원은 자신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조금만 더 마시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두통이 오면서 본인도 모르게 술이 가빠진다고 한다. 이리다 죽는 것 아닌지 의심할 정도라 한다. 사회생활을 잘 해보시려는 분들께서는 많은 술자리에 참석하여 평소와 같지 않은 정보를 얻고 동료들 간의 동료애를 다져 보고 싶은데 술자리에서 한잔도 못하고 남들의 눈치만 보라니 한심하게 느껴진다. 마시자니 뱀이 안 따라주고 있어 있으려니 속스럽고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럼 이분의 체질은 남들과 틀리거나? 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도 알코올성 간질환이 2배나 높다. 전에는 여성들의 위축에 알코올을 분해 효소인 알코올-디하드로게나제(alcohol dehydrogenase)의 활성도가 낮아 위축에서 분해됨이 없이 흡수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빨리 더 높아져 간

질한 빈도가 높아진다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의한 영향으로 내독소 혈증을 초래하여 간의 급성 염증을 일으킨다. 더구나 공복에 술을 마시게 되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빨리 넘어가므로 위에서 알코올-디하드로게나제에 의해 분해할 여유가 없어 식사 후보다도 혈중에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시메티딘, 라니티딘 같은 항 궤양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도 복용하면 위장의 알코올-디하드로게나제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위장 일차 통과대사(first pass metabolism)가 감소 되어 혈중내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아지고 알코올의 분해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도 높아지게 된다. 높아진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우리 몸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그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홍조증? 어떻게? 알코올 분해효소인 알코올-디하드로게나제는 간에 제일 많이 분포되고 그다음으로 위장관, 신장, 비점막, 고환, 자궁 등으로 분포하는데 각 기관에서 알코올을 분해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혈중에 높아지면 자율신경계와 심혈관계에 강력한 작용을 갖고 있어 안면 홍조, 오심, 심계항진, 두통 등의 급성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혈중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증가하

는 경우는 첫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빨리 많이 생성하게 하는 비전형적 알코올-디하드로게나제를 갖고 있는 사람과, 둘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분해효소인 아세트알데하이드-디하드로게나제(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가 기능을 못하는 변이형 아세트알데하이드-디하드로게나제(ALDH2)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혈중농도가 높아져 홍조 등 급성증상을 일으킨다.

이분이 계속 마신다면 좋아질 수 있을까? 정상적인 기능의 아세트알데하이드-디하드로게나제를 갖고 있는 분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마시면 잘 먹을 수 있다. 이유는 간의 마이크로솜에 존재하는 혼합-기능 산화 효소 체계(mixed-function oxygenase system)의 활성화가 커져 술을 잘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체지방 비율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알코올의 분포용량이 적어 같은 양의 술을 마시면 혈중 농도가 높아져 증폭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즉 술을 잘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연령, 음식, 생체리듬, 운동, 약물, 등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술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다양하다. 또한 만성적으로는 음주하게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단백질의 결합물을 생성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고 면역반응을 일으켜 간 등의 손상을 초래

하게 된다. 이런 간의 손상은 알코올의 도수와 섭취량에 관계가 깊다. 그러나 설명 많은 양을 섭취한다고 간장 질환이 꼭 생기는 것은 아니고 술에 대한 개인 감수성이 문제가 되고, 나이, 성별, 바이러스, 약물, 영양 등 관련인자들이 영향을 줄 것이다. 홍조증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의 좋은 음주방법은 없을까? 한마디로 안 마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꼭 마셔야 한다면 알코올이 없는 음료수를 대신마시고 자기 자신의 위트와 유머 감각을 살려 분위기를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매일 반주로 마시는 분이 폭주 하는 것보다 나쁜가? 나쁘다. 알코올 마시는 양에 비례하여 간세포내 저산소증을 초래하여 혈액순환장애가 발생되어 간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간내 미토콘드리아 핵산(DNA)를 대량 분해시켜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간세포가 파괴되어 염증이 생기면 파괴된 부위에 섬유화 일어나고 간암도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약주로 인한 간기능의 이상이 있으면 금주해야한다. 더 계속 마시는 것은 자살과 같다.

프로필
 • 분당차병원 내과교실 주임교수
 • 대한민국 간학회 평의원
 • 대한민국 의사 회원

플러스건축

인테리어의 선구자
30년 전문시공 대표 이상훈

전문

아파트 인테리어 / 상가 인테리어
전문 사무실 시공 / 건축 · 설계

최상의 인테리어
저렴한 책임시공

HP 011-9964-4298
사무실 032-529-9591~2
FAX 032-513-9442

사)한국참사랑복지회와 성남일보가 함께 펼치는 '성남희망 프로젝트'

“사랑을 나누면 행복한 세상이 열립니다”

한정 취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 지역 노인복지의 실태를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모아진 지역사회의 성금은 배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에 희망을 드리는 '희망만들기 프로젝트'



'성남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성남희망 프로젝트'는 성남일보의 현장 취재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든 지역 노인복지의 실태를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모아진 지역사회의 성금은 배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어려운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에 희망을 드리는 '희망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성남희망 프로젝트'는 어르신들을 위한 생

발 사업' 등 지역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남희망프로젝트'는 지역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집중 조망함으로써 위기의 순간을 혼자 힘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일 아침 야쿠르트를 배달하여 '안녕'을 확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루 100여 원, 한 달 5000원으로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아침 안녕을 확인하는 소중한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성남희망 프로젝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사)한국참사랑복지회(이사장 김광배)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지역언론 성남일보(회장 김종균)가 지역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계 후원에 그치지 않고 후원자들의 희망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만들기 사업', '노인대학예방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노인 여가선용 프로그램 계

■ 후원 계좌 안내

- 하나은행 496-910003-51205 • 우리은행 1005-800-962376 • 농협 172-01-251420
- 국민은행 624801-01-126102 • (예금주 : 한국참사랑복지회)

■ 문의 : 한국참사랑복지회 사무국 ☎031-735-9600

- ※ 후원하신 기부금은 개인소득세법 제18조, 법인세법 42조에 의거해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야쿠르트 후원은 매일 자동이체하시거나 년간 후원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우리가 지킨다!! 야쿠르트 특공대!!

현재 중원구, 수정구 에는 무의탁 다수의 독거 어르신이 매일 단 한명의 방문도 없이 쓸쓸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뉴스에 독거어르신이 사망한지 1개월만에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웃, 우리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이렇게 혼자 쓸쓸히 살고 계시면서 하루하루를 보장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야쿠르트 특공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야쿠르트 특공대'란 독거어르신께 매일 1개의 야쿠르트를 지원함으로써 매일의 어르신 일상안부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사회복지사의 긴급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루 1개 한달 4,000원의 관심이 혼자 사는 1명의 어르신께 1개월 동안 야쿠르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T.031)747-1886 (담당자 차순희 팀장)
- 후원계좌 : 302-226650-01-001 (우리은행 한국참사랑복지회)

손두선 프로

골프는 '인생의 희노애락' 이다

누군가 나에게 말한다. "프로골퍼가 뭐가 더 배울게 있어서 지금도 골프 레슨을 받으세요(??)" 이런말을 들을 때면, "골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우리는 골프를 인생과 비유하곤 한다. 그 희로애락이 인생의 삶과 너무 흡사해서일까?
공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무척 아름다워 보인다. 골프 역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돌려준다고 한다. 공임없이 노력해야 만이 그 가치도 한층 성숙하기 때문이다.



역사가 변해가듯, 골프의 흐름도 눈에 띄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면서 골프를 치겠다고(??) 아니, 잘 가르쳐 보겠다고 하겠는가?

지금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끔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수년 전에 쌓은 실력으로 프로의 자격을 얻고 수년간씩 같은 방법으로 레슨만을 해오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그것이 마치 변할 수 없는 원칙인양 골프에 원칙이 어디 있는가?

바둑판의 변화처럼 똑같은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 비록 진리와 같은 원칙은 없다고 하더라도,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꾸준

히 배우고 사람에 따른 다양각색의 레슨의 방법도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본의 테두리에서 응용되고 있는 신 개념의 골프를 배우는 사람이 레슨을 통해 조금씩 골프실력을 향상시켜 갈 것이다.

필자는 마흔 셋을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에 골프를 직업으로하고, 골프레슨도 하고, 가끔씩 학교나 직장단체의 초빙을 받아 골프강의도 하고 있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골프실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그런데 가끔씩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골프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레슨의 내용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프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더라, 또는 TV프로나 골프잡지 등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더라는 등 판단 피우는 웅변만 늘어놓는다.

본인의 급한 성미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우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되도록 레슨을 삼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거의 골프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거나, 이제 골프가 뭔가를 조금 알 것 같은 사람들이다.

필자는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선·후배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하나 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메모해두고 있다.

이를 연습장이나 실전에서 실행에 옮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함성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 "골프에도 원칙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원리가 있구나!" 하는 느낌... 프로의 지도를 성실히 수행하

다 보면 "골프의 맛"이 뭔가를 흐뭇하게 느끼곤 한다.

그렇다! 때사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직장에서 우대를 받듯이, 골프 역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남보다는 빨리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 시대에 걸맞은 골프의 역사는 용품에서부터 기억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변화면서 발전해 가고 있기에, 기왕 즐거운 골프라운딩을 원한다면 현실에 맞는 골퍼이론과 실재를 배우고 익혀가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골프! 그 자그마한 공 하나가 인생을 율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네!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골프! 뭐하려고 생각하고 하면서 험악까지 늘어가는가? 라고 반문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 속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묘한 인생의 맛과 맛이 숨어 있기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맘을 흘리고도 흐뭇해지는 골프이야 끝을 수 없는 스포츠가 골프가 아니겠는가!

통쾌한 드라이버샷을 날릴 때 그 기본은 공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봉채함을 맞으며, 짜릿한 퍼팅이 출인했을 때 인생의 승부에서 승리한 감동을 맞보는 순간, 세상의 그 무엇이 부러우리! 보다 더 아름다운 "골프의 참 맛"을 맛보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 희열을 나누리라!

TIP

손두선 프로는 KPGA 회원, USGTF MEMBER, 분당 스파밸리연습장 헤드프로, 2급 경기지도자 자격 획득, 3급 생활체육 지도자 획득, World PGA 경기운영이사, 성남시 골프협회 경기위원, MFS 오렌지 골프구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 꽃 배달 서비스

동양란 꽃 식목원

동양란 · 서양란 · 자생란 · 석부작 · 분재 · 관엽 · 축화화분
선인장 · 근조 · 축화화환 · 꽃다발 · 꽃바구니 · 출장분갈이

분당 031)759-4949 FAX 031)759-5801
HP 018-365-3716

전화카드 결제가능



국민건강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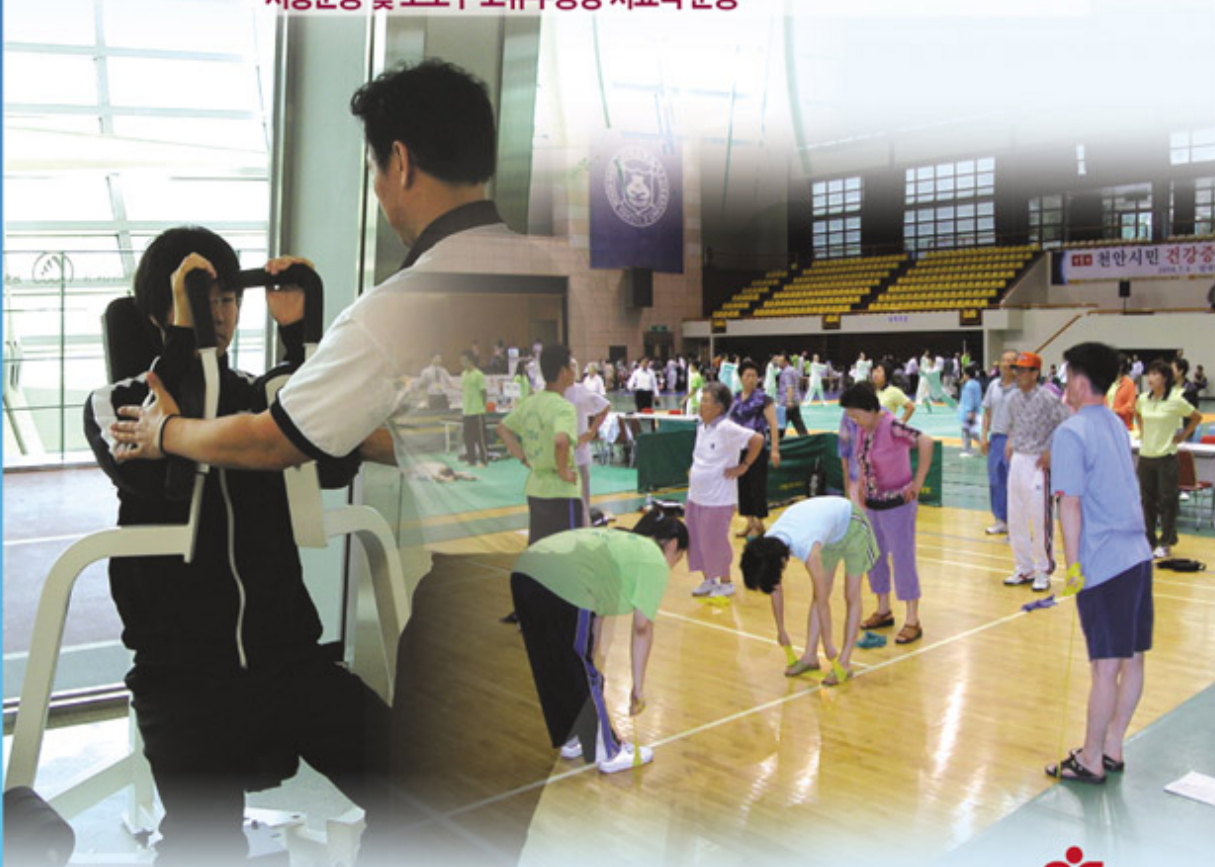
운동실천 Campaign, 2006

대한운동사회는 국민건강의 지킴이 운동전문가 단체입니다. 본회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 운동실천 Campaign"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체력수준을 알아보고 올바른 운동방법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일 시 : 2006.6.17(토)-18(일)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양재 꽃사장 옆)
- 주 최 : 대한운동사회
- 주 관 : 서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영지대학교 체육학부
경원전문대학 스포츠건강관리센터, KACE스포츠건강의학연구소
- 참석대상 :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누구나
- 행사내용 : 신체검사 => 체력검사 => 운동상담 => 운동체험



- 신체검사** PAR-Q/혈압/혈당/체지방 검사
- 체력검사** 심폐기능/유연성/근력/평형성 검사
- 운동상담** 생활습관병(비만/당뇨/고혈압 등), 근골격계 질환(요통/관절염/오십견 등)
- 운동체험** 스트레칭/요가/태극권/요통체조/유산소운동/무산소운동
저항운동 및 소도구 고수용성 치료적 운동



KISME 2006
제7회 운동사대회

운동은 운동사에게 연락처 : 02)521-3593,4/586-3813,4

KACEP
대한운동사회



수진역 2분, 인근 9개 학교, 유흥상권이 만난 트리플 프리미엄!

신동아 파밀리에 상가 분양 · 임대

탁월한 입지, 저렴한 분양가, 브랜드 신뢰도까지-
시작부터 특별한 투자, 신동아 파밀리에 상가를 주목해 주십시오!



 **신동아건설**
Tel.031)753-9999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

“도지사는 국민의 머슴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프로필

- 1951년생
- 제15, 16, 17대 국회의원(부천 소시)
-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 국회민생정치연구회장
- 전국보육시설연합회 감사패 수상

- 이번 선거에 대한 당선 소감은.

1100만 경기도민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승리는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경기도민의 승리입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압도적 지지의 큰 뜻과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506개소의 상습 교통 정체구간을 해소하겠습니다.

북부에는 고속도로를 놓고 동부에는 규제를 풀고 친환경적 개발을 하겠습니다. 구도심에는 뉴타운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이 같은 정책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서민도지사, 일꾼도지사, 애국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청빈하고 깨끗한 도정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고, 경기도의 행복이 대한민국의 행복입니다. 갈등과 이해를 조정하여 통합의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 앞으로 도정 운영 방향은.

안정속의 개혁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와 주력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도 만들 것입니다.

분열과 대립, 갈등의 정치를 지양할 것입니다. 반대의견도 경청하고 설득하는 통합의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철저한 미래준비에 나설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도정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청렴을 바탕으로 한 정도(正道)를 가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는.

겸손입니다. 공무원 직은 벼슬이 아니고 머슴입니다. 도지사는 국민의 머슴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잣대로 도정을

계획하고 행하면 안 됩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권위를 앞세우는 공직자는 그 존재가치와 의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도민들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공직자들이 많으면 경기도가 발전하고 도민들이 행복해 질 것입니다. 또 고위공직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때 리더십이 형성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 도의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고 당선지에 대해 행정 경험의 미숙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공무원들과 함께 일 한 경험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공무원 수는 서울의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치단결하여 경기도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하나하나씩 정한 목표를 달성해 가면서 보람을 느낄 것이라 믿습니다.

말 보다는 실제 도를 운영하면서 행동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 도정 인수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도정 인수위원회는 경기도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 새로운 지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도 합니다.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와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할 것입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해 역점을 들 사항은 4년 도정 전반의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정책기조 설정과 함께 실천 프로그램 준비 등이 이뤄질 것입니다.

-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경기도민들이 선거운동기간 내내 한 나라당과 저에 대해 변함없는 높은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문에 저의 정책과 소신을 알리는데 주력했고 선거자체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경선을 즈음해서 힘이 아팠습니다. 그 때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간이 제약되고 불편한 교통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 볼 수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가 태러를 당했을 때 정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 경기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입니다.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규제로 공공 분야에 있는 경기도를 자유롭게 풀어줘야 대한민국이 성장합니다.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막혀 있는 교통을 확 풀고 낙후지역을 발전시켜 31개 시, 군이 어디서나 살고루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 애써왔고, 선거운동기간 내내 경기도 곳곳을 다니며 경기도가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경기도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110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Business Live Cafe Restaurant
Casablanca

You Promise. We Prepare.

카사블랑카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usiness Live Cafe Restaurant

**읽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하는 당신! 약속하십시오.
당신이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지칠때 안식처가 되고, 당신이 외로울때 마음을 나눌 친구가 되겠습니다.



- Live공연(저녁 08:30, 09:30, 10:30, 11:30) ■ 추억의 팝송
- 비즈니스, 단체모임, 가족모임 ■ 영화감상
- OPEN 오전 10:00~CLOSE 새벽 02:00



T.(031)709-5533, 703-6374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03-1

한춘섭 성남문화원장

성남을 충과 효의 도시로 만들어야

지역정체성 뿌리 찾기에 15년간 애정을 쏟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성남학의 첫 길'을 내고 성남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뿐 만 아니라 불모지 상태에 있었던 성남 향토지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역사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원장의 지역사랑에 대한 애정은 남달라서 그동안 연구한 성남의 향토문화 관련 논문만 20여 편에 이르고 저서도 13권에 달하는 등 성남사의 체계화에 열정을 바쳐온 성남인이다.

지역사에 대한 열정만큼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도 화려하다.

성남문화원 원장, 향토문화연구소장, 성남컨설팅 창립회장, 성남탄천문화회 회장, 성남문화정보센터운영위원장, 문춘청소년문화상 운영위원장, 성남향토유적보호위원 등 지역문화와 관련된 일에는 한 원장의 숨결이 배어 있다.

"성남은 충과 효와 청백리의 역사인물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고장입니다. 이제 성남도 100만도시에 걸맞는 문화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 3월 제10대 성남문화원장에 취임한 한춘섭 원장의 일성이다.

한 원장은 지난 1966년 시조문학 추천으로 시조시인으로 문단에 등단한 후 지난 80년부터 풍성고등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지역사랑에 남다른 열정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한 원장은 지난 1993년 출범한

한 원장은 기형적으로 탄생된 성남이 정체성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성남지역의 문화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 풍성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동안 잊혀진 성남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모색에 몰두해 왔다.

당시 향토유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 원장은 20여년전 조선시대 여류시인인 강정일당이 쓴 시조집을 찾아내 성남지역 1호인 성남지역 향토유적 1호로 강정

일당을 지역사에 복원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러한 한 원장의 지역문화 찾기 운동의 성과로 인해 이제 성남지역의 향토 유적도 7개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향토유적 지정과 이의 복원에는 한 원장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다.

한 원장이 꿈꾸는 성남은 어떤 것일까? 한 원장은 성남문화원 부원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지역정체성 뿌리 찾기에 15년간 애정을 쏟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성남학의 첫 길'을 내고 성남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원장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성남, 광주, 하남 등 3개 도시간의 문화원 협의체를 구성해 특색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한 원장은 초심의 마음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한 성남문화원에서 성남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문화는 빨리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장기적 상품"이라며 "문화부흥의 폭넓은 견해를 수용하는 '경영마인드'를 키워 나가기 위해 저마다 자책지책을 버리고, 새로운 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부흥을 위해 참여의 문화, 나눔의 문화의 산실이 성남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프로필

- 단국대학원 박사과정 이수
- 풍성고등학교 교사
- 성남문화원 부원장
-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 성남3.1운동기념사업회장
- 성남시 중앙문화정보센터 운영위원장

www.ksnga.or.kr

제52회경기도체육대회 및 제20회도지사기쟁탈 골프대회

우승

성남시골프협회
SEONG NAM CITY GOLF ASSOCIATIO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486 제2조합운동장 BE1-3호
TEL : 031-7077-002(3Line) FAX : 031-705-8206

SEONG NAM CITY GOLF ASSOCIATION

공짜 호주 교육이민- 들어 보셨습니까?

당신에게 무료 호주 자녀유학의 기회를 소개 합니다

주정부 후원 사업주 비자(163)

▶ 호주 연방 이민성과 각 주정부가 제공하는 4년간 (고교까지) 무료 호주교육 이민 프로그램

■ 유학생 비자와 163(주정부 후원 사업주) 비자 소지자 자녀의 비교표

		유학생	163 비자 자녀
1	학비	2000~4000만원/년	없음
2	입학허가서	반드시 있어야 함	집 근처 공립학교에 가서 입학의향을 보이면 해당 교장은 빠른 시일안에 입학을 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
3	비자	이민성-학생 비자 심사 있음	없음
4	영어수준	정식 입학 전 일정수준의 영어실력 요구 - 영어학교를 추가로 다녀야 함(추가비용)	학생이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시켜줘야 함
5	학기	다음학기까지 기다려야 함	학과와 상관없이 빠른 시일내에 입학 가능
6	출석율	80% 미만의 출석률이면 학생 비자가 취소 됨	없음
7	특징	자비를 내면서도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신청자격!! 예상보다 너무 쉽습니다.

둘 중의 하나		
자	사업가	연매출 2억4천 이상 되는 사업체에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
격	직장인	연매출 8억 원 이상 되는 사업체에서 4년이상 과장 이상의 직책에 계신/계셨던 분
공통자격		① 2년안에 2억원 이상을 호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증빙 (배우자 포함부동산+잔고증명, 주식등) ② 55세 미만

163 비자가 주는 삶의 혜택

- ① 업무도 못 내었던 연간 2000-4000만원이 소요되는 자녀 해외 유학비용 이제는 무료로
- ② 자녀에게 유창한 영어능력만이라도 남겨 줍시다
- ③ 한국의 입시지역에서 자녀들을 구합니다
- ④ 자녀들의 숨어있는 재능을 개발해 줍시다
- ⑤ 더 이상 기러기 아빠, 엄마는 없습니다
- ⑥ 신청할때 아빠 자격으로, 영주권은 엄마가
- ⑦ 안정된 노후대책 미리 준비 합시다
- ⑧ 호주 영주권을 받고도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체류가 가능
- ⑨ 호주 영주권 취득 후 바로 뉴질랜드 영주권 획득!!!

전문직 미국 독립이민 (NIW)

- 의학, 과학 분야 박사 학위가 있으신 분.
- 권위 있는 과학지에 논문을 올린 경험이 있으신 분.
-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 혹은 학자 이신 분들.
- 국제적 명성 업적 또는 수상 경험이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

취업조건, 투자조건, 거주조건에 관계없이 가장 신속하게 전가족 영주권 취득과 공교육혜택, 의료보험, 연금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paran** 과 함께하는 나라이주 세미나에 무료로 초대합니다.

전문직 미국이민(NIW) 특별세미나

- 일시 : 6월10일(토) 오후 5시 - 7시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본관3층 컨퍼런스 센터 310호
- 문의 : 02-664-3833 / 016-744-8293



paran 이민, **Paran** 이민과 함께합니다.
www.hitoos.com



이제는 갈등이 아니라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가 13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었던 후보들에게 당락에 상관없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선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공정한 승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노력했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라는 축제 의 잔치(?)가 끝난 만큼 승자는 패자에 대해 관용의 마음을 갖고 패자는 선거결과에 대해 법적 한계가 없다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4년간 지역살림을 책임질 당선자들이 겸허한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에 대해 진심된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통점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로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출마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남시장선거에 당선돼 최초의 민선재선시장으로 기록된 이대엽 시장의 향후 행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대엽 후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저의 당선은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바른 선택을 해주신 현명한 시민들의 승리" 라면서 "시 최초의 연립 민선시장이라는 소중한 것도 값진 영광을 제게 주신 것은 시정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

는 여망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은 "시의 중단 없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가장 시급한 시정 현안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며 분당·판교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지역내 갈등과 관련한 화합적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솔직히 이번 선거는 이대엽 시장의 민선 3기체제가 제대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변수에 의해 한나라당의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시장선거는 '지속적 발전이나... 10년 퇴보할 것이냐'의 상징적 의미로 압축된다. 민선3기때 불거진 각종 의혹 사건과 인사전횡 등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지난 4년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판교개발로 인해 조만간 성남의 인구는 100만을 훌쩍 뛰어넘고 1년 예산만 2조원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최고의 예산과 시세를 자랑하는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

특히 판교개발과 더불어 진행될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설 경우 성남의 도시지형은 급속히 재편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4년의 재선에

성공한 이대엽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사안에 대해 당선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마음에 들지않더라도 이를 지역화합에 동참시키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이대엽 시장도 이번 시장을 마치 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이다.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성남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대엽 시장의 선거 모토가 이제는 '갈등없이 화합하는 자랑스런 성남'의 모습을 그려내야 하지 않을까?

이대엽 시장은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공보물에서 '이대엽의 흥 들은 장화를 기억하십니까'라며 "포장 도로 거의 없던 성남개발 초기... 흥 들은 장화 차림으로 성남 구석을 누비던 이대엽의 모습은 지금도 성남시민들의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지난 4년의 폐해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하고 시민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의 시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제는 도약하는 성남발전을 위해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이다. 이 중심에 이대엽 시장의 역할이 놓여있다. 이제 선택은 이대엽 시장에게 달려있다. 100만 성남시민은 이를 지켜볼 것이다.

모동희 /편집장

NEWS DAY

www.newsday.or.kr

회장 | 김종근
 부회장 | 정해민
 총무이사 | 김진중
 발행·편집인 | 김관한
 편집장 | 오동희
 취재기자 | 오익호, 이나래
 등록일 | 2005년 9월 30일
 등록번호 | 경기 410907
 통신판매 |
 발행처 | 주식회사 디지털 성남일보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06
 신동아상가 B11
 구독·광고신청 문의 | 031721-9922
 팩스 | 031721-9921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성명요구를 준수합니다.
 www.newsday.or.kr는 (주)디지털산성정보가 발행하는 온라인 신문입니다. 성남·광주지역의 실시간 뉴스는 컴퓨터에서 '뉴스데이'를 지킵니다.

사 고

김종근 골프협회장 성남일보 회장 취임

(주)성남일보 창간 6주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될 것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여는 신문'을 창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2000년 7월 6일 출범한 (주)성남일보가 오는 7월 창간 6주년을 앞두고, 현 성남시 골프협회와 민족통일 성남시협의회 회장 이자, 성남시체육회 가맹단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종근 회장을 (주)성남일보 회장으로 추대했다.

김종근 초대 회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체육발전을 위해 앞장선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김종근 회장의 (주)성남일보 회장 추대는 지역 최초의 인터넷 신문으로 출범한 성남일보가 창간 6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 (주)성남일보와 (주)뉴스데이 독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기사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 취임식은 성남일보 창간 6주년 기념일인 오는 7월 6일 창간 6주년 기념

식을 겸해 열릴 예정이다.

김종근 회장은 "지역신문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정론지로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신문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2006년 6월 1일
 (주)디지털산성일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가구!



평촌NC전경
031)383-6270



논현매장전경
02)516-3387



영통그랜드전경
031)201-7212



수원애경전경
031)240-1564



PASTEL kiz 문의 031)766-6270
www.pastelkiz.com

www.z-in.co.kr

“머물고 싶다.. 이런 창가”

그녀 마음에 들기위해 디자인도 컬러도 자꾸자꾸 좋아집니다.
머물고 싶은 창이 되어갑니다. 여자의 마음은 특별한 창에만 열리니까요.

* Z:IN HAUT는 LG화학의 정호 화학 브랜드입니다

창에 대한 긴: 생각 Z:IN HAUT



특별한 창 Z:IN HAUT의 발코니 확장 전용창 탄생 이벤트

Z:IN HAUT의 발코니 확장 전용창으로 더 머물고 싶은 창을 만나보세요. (확장형이중창: D240, D260, D270, D290 시스템창: PTT145)

www.z-in.co.kr에서 지인 하우트 광고 이야기 완성하기, 퀴즈풀기 등에 참여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1등: 500만원 상당 인테리어 상품권 외 다수) / 응모기간: 5월 18일 ~ 6월 9일